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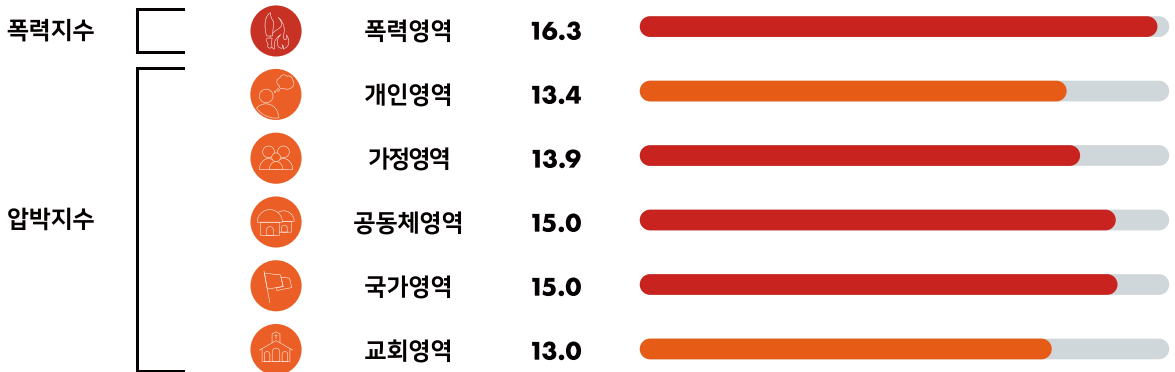
8위

파키스탄 (PAKISTAN)



©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은 1947년 독립 이후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에서 소수 집단으로 존재해 왔다. 역사적 교회들은 제한적인 자유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한 감시를 받으며 때때로 폭력적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전도 활동에 적극적인 교회들이 그러하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데 점점 더 활용되고 있으며, 신성모독 혐의는 보복, 함정 수사, 토지 강탈, 그리고 기독교인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정부의 취약성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 단체들의 영향력 확대는 기독교인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불가촉천민'으로 여겨져 온 청소 노동자 계급의 후손이며, 지금도 제도화된 차별에 직면해 있다. 많은 이들이 빈곤 속에 살며 채무노동에 묶여 빠져나오기 어렵다. 특히 소녀들은 강제 개종, 조혼, 그리고 고용주에 의한 불법 구금의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은 급진적 이슬람주의 단체로부터 뿐 아니라, 개종을 수치스럽고 배신적인 행위로 여기는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 종교의 자유 침해로 심하게 겪는다.

파키스탄 (PAKI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사바즈 샤리프 총리

인구 : 249,949,000명

기독교인 수 : 4,785,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연방 의원내각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785,000	1.9
무슬림	238,163,000	95.3
힌두교	3,479,000	1.4
기타	3,522,000	1.4
	합계	100%

출처²

파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 취약한 민간 정부, 간헐적인 군부 통제, 인도와의 긴장 고조, 그리고 확산되는 포퓰리즘은 소수자들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1.8%에 불과하며 특히 주변화되어 있다. 인구의 96%는 무슬림이며, 그중 다수는 수니파 전통을 따른다. 헌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이슬람의 영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신성모독법은 기독교인을 불균형적으로 표적화하는 데 점점 더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종종 허위이며, 양값음의 구실로, 기독교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2025년 3월 13일), 또는 강제 퇴거를 포함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Human Rights Watch, 2025년 6월 9일) 이용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사형을 포함할 정도로 가혹하다. 또한 이런 사건들이 촉발할 수 있

는 군중 폭력은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2023년 자란왈라(Jaranwala) 공격에서 25곳이 넘는 교회가 공격을 받고 주택이 파괴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년이 지난 뒤에도 정부는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데 소극적이었다(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2025년 6월 6일).

기독교인을 위한 일부 법적 보호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치, 법조계 및 더 넓은 공적 영역에서의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특히 지역 차원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은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인데, 다수가 도로 청소부로 일해 온 ‘추흐라(Chuhra)’ 불가촉천민 계급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인은 대체로 청소, 위생 관련 노동, 또는 벽돌가마에서의 채무노동 등 낮은 지위의 직업에 종사하며, 많은 기독교인이 빚에 얽매어 있다.

법적·문화적 규범은 성불평등 또한 강화하여,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 강제 개종 및 강제결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2025년 5월 의회는 결혼의 법정 최저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아동결혼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슬라마바드에만 적용되며, 모든 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신드(Sindh) 주의 사례는 입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기독교 소녀들의 근본적 취약성은 그 가족이 빈곤에 갇혀 있는 한 지속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Girls Not Brides, 2025년 7월 11일).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과 결합된 민족-종교적 적대감

파키스탄에는 정부 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급진적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기독교인을 불신자로 간주하는 이슬람주의적 포퓰리즘을 대변한다. 최근 신성모독법 악용에 대한 조사 제안이 나오자, 소셜미디어 캠페인과 공개 성명을 통해 어떤 조사든 이슬람적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2025년 7월 25일). 이러한 단체들은 군중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사법 체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파키스탄은 부패 지수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으며, 사회 전반의 모든 부문에서 법치주의 지수 (Rule of Law Index) 142개국 중 129위를 기록했다(World Justice Project, 2024). 조직범죄는 도시 및 부족 지역에서 큰 문제이며, 폭력적 이슬람 무장주의와 빈번히 연결된다. 채무노동은 여전히 광범위한 형태의 노예제이며, 농촌 지역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빠져나오지 못한 채 갇히게 된다. 토지 강탈도 발생하며, 교회가 수용되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총리들은 종종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데, 현 총리 역시 축출된 전 총리 임란 칸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대중,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급진 단체들, 그리고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강력한 독립적 군부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총리들이 권력을 유지하려 할수록 기독교인은 쉽게 정치적 도구가 된다. 정권 유지를 위해 정부와 군이 기독교인을 회유할 수도 있고,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차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펀자브 주에 거주하며, 박해, 차별, 그리고 불관용의 사건도 대부분 그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펀자브 다음으로 신드 주 역시 많은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채무노동의 집중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나머지 두 주인 카이버 파크툽크와와 발로치스탄에는 기독교인이 더 적지만, 고립된 환경 때문에 이들 또한 증가하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주로 도시에 기반을 둔 해외 출신 기독교인은 신앙을 실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압박을 경험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두 주요 역사적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파키스탄 교회(1970년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연합개혁교회가 통합되어 형성됨)이다. 이들은 구성원 납치나 강제 개종, 토지 강탈을 포함해 감시와 적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개종자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은 급진적 이슬람주의 단체와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겪는다. 힌두교 배경에서 개종한 소규모 공동체도 존재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 계열 단체들은 특히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할 때, 빈번히 괴롭힘과 공격을 당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파키스탄의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심각한 성별 특화 박해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소녀들은 납치, 강간을 당하고, 납치범에게 강제로 개종한 뒤 '결혼'하도록 강요되는데, 피해자에는 장애가 있는 소녀를 포함해 7세처럼 매우 어린 아이들도 있다. 가족들은 종종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며, 경찰은 대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법원도 빈번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생존자들은 파키스탄의 명예 중심 문화 속에서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사회적 낙인을 견뎌야 한다. 기독교 여성은 산성 테러, 직장 내 괴롭힘, 신성모독 혐의, 명예살인 등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벽돌가마와 같은 채무노동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며, 그곳에서 추가적인 성폭력과 착취에 노출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파키스탄의 기독교 남성은 신성모독 혐의, 허위 구금, 고문, 처형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 남성이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살인이 흔히 발생하며, 허위 혐의가 제기될 경우 가족 전체가 그 여파를 겪는다.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은 "추라(Chura)"(더럽다)라는 낙인이 붙는 낮은 지위의 일이나 위험한 일을 강요받거나, 벽돌가마와 같은 채무노동에 묶이기도 한다. 일부는 일자리를 잃거나 혐의를 뒤집어씌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숨긴다. 소년들에 대한 성적 학대 보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침묵을 강요받는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허위 혐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8	87
2025	8	87
2024	7	87
2023	7	86
2022	8	87



전체 점수는 영역별로 소폭의 변동만 있을 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기독교인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박해의 주요 요인(신성모독법과 기독교인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주변화)이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반영한다. 올해는 2023년 자란왈라 공격에 비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박해 사건은 더 적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더 많았다. 압박과 폭력은 여전히 만연하며,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5년 1월 8일: 12세 기독교 소녀가 납치되어 강제로 개종하고 35세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경찰에 의해 두 달 뒤야 구출되었다(Morning Star News, 2025년 3월 10일).
- 2025년 7월 19일: 라호르에서 한 남성이 식료품점에서 과도한 청구에 대해 항의한 뒤 체포되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자백을 강요하려는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Morning Star News, 2025년 7월 21일).
- 2025년 7월 26일: 한 기독교인 위생 노동자가 영향력 있는 지역 인사의 개인 쓰레기를 치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벽돌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Pakistan Christian Post, 2025년 7월 28일).
- 2025년 8월 16일: 펀자브 주 시알코트 지역에서 한 기독교인 노동자가 두 명의 무슬림 남성에게 위협을 받던 기독교 소년을 구하려다 흥기에 질려 사망했다(Worthy News, 2025년 8월 24일).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강간 및/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수	결혼을 강요당한 기독교인의 수
2026	24	12	100*	100*
2025	14	40	10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신성모독법 때문에 무슬림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 페이스북 게시물조차 내용이 이슬람적 가치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면 위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4세 청소 노동자 아르살란 길은 퇴근 후 귀가했다가 구금되었고, 페이스북 그룹에 신성모독적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이 기독교 자료를 개인적 사용 범위를 넘어 보관하는 것도 위험한데, 무슬림을 전도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징을 드러내거나 기독교식 이름을 갖는 것만으로도 차별이나 재산 훼손을 촉발할 수 있다.

가족 영역

소도시와 외딴 마을에서는 기독교 아동이 지역 마드라사(이슬람 종교 교육기관)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반면, 기독교 교육은 주일 예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하려 하는데, 자녀가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기독교 아동은 음용수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무슬림 또래와 같은 식수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아동은 흔히 괴롭힘을 당하며, 많은 경우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바닥을 쓸도록 요구받는데, 기독교인은 흔히 청소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일부 교과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 새 교육과정은 교육을 더욱 이슬람화하며,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열등하다는 관점을 아동에게 주입한다.

지역사회 영역

기독교인은 국가에 의해, 그리고 점점 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서도 감시를 받는다.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을 향한 압박이 너무 커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자들은 자격과 무관하게 낮은 수준의 일로 내몰리는 일이 흔하다. 공공기관 밖에서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농장은 무슬림에 의해 보이콧을 당하고, 때로는 파괴되기도 한다.

국가 영역

파키스탄은 1973년에 이슬람 헌법을 채택했고, 민법에 샤리아 법을 도입했다. 최근의 이슬람화 과정은 1986년 신성모독법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 법은 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보복을 위해 자주 악용된다. 기독교인은 정치 영역에서 대표성이 낮고, 그들의 견해는 종종 무시된다. 정치인들은 종교적 소수자 소녀들을 납치와 강제 개종·강제결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한다.

교회 영역

교회 활동은 감시를 받는다. 당국은 경비원을 제공하지만, 이들은 듣고 보고하며, 급진적 이슬람주의 단체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공격은 흔하며, 가해자가 처벌 받는 일은 드물다. 억압받는 소수자를 위한 옹호 활동은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파키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은 공동체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되고, 강간 및 집단강간을 당한다 (ICCPR 제7조)
- 기독교 소녀들은 납치범과 결혼하도록 강요받고, 강제로 개종당한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기독교 소녀들은 강제노동과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된다 (CRC 제34조 및 ICCPR 제8조)
- 기독교인은 허위로 고발되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고 사형을 선고받는다 (ICCPR 제19조)
- 기독교인은 신앙 때문에 “불명예스럽고”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을 맡을 것으로 간주된다 (ICCPR 제26조 및 ICESCR 제11조)

파키스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종교의 자유는 2025년에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힌두교도, 시아파 무슬림, 아흐마디 무슬림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는 일을 계속 겪는 한편, 군중과 경찰에 의한 폭력도 당했다 (USCIRF, 2025년 3월).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무슬림(70%)과 아흐마디(14%)였다 (Centre for Social Justice, 2025년 3월). 강제 개종은 힌두교 소녀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Unsplash

오픈도어의 파키스탄 사역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에 상주 활동 기반이 없지만, 걸프 지역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 교회를 통해 사역하는 여러 협력 파트너들을 지원한다. 이 사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성경 문해력 및 리더십 훈련
- 교육, 보건 및 구호 활동
- 지역사회 갈등 완화 및 화해 증진 활동
- 여성을 위한 지원 그룹 및 직업훈련
- 생계 지원 프로젝트
- 남성을 위한 직업훈련
- 현지 교회를 위한 연구 및 옹호 지원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